창세기 12:1-3 “너는 복이 될지니라” 2026.5.31 주일 설교 | 소그룹 공과

[인트로]

복이 되라고 부름받는 것은 참 아름다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된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란 이상하리 만큼 한결같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고, 이삭은 흔들렸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요셉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면서도 여전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나눔]

아래 설교문 부분 요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십시오. 떠나야 했고, 기다려야 했고, 흔들렸습니다. 이삭도 쉽지 않았고, 야곱은 스스로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민이 그들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먼저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향력 있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 실패와 책망, 내면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봄의 나무를 보십시오. 새 잎은 아름답지만, 봄바람은 참 거셉니다. 나무를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나무의 뿌리를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 사람들과 새들이 그 아래서 쉼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통 “복된 삶”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된 삶”은 내 기대와 어떻게 다릅니까? 또한 내 삶의 현재 어려움이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사람, 곧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연단과 훈련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